



연변, 전국 36 개 새로운 '보물도시'에 선정

5월 25일, 대중평의 2024년 '필수 관광 순위'가 정식으로 발표된 가운데 전국 84개 도시 및 지역이 여기에 포함되었다. 따라서 지난해 대비 36개 도시가 '문화관광의 새로운 명함'으로 추가 선정되었다.

순위에 오른 관광지 개수는 총 1,306개이며 북경, 성도, 소주, 중경, 항주, 광주, 장사, 서안, 남경, 상해

의 관광지 개수가 상위 10위권에 진입했다. 이번 순위에는 '친자놀이', 'citywalk(城市漫步)', '야간생활' 등 부분을 추가하여 다양한 사람들의 나들이 수요를 충족시켜주었으며 새로운 트렌드에 따라 더 많은 2, 3, 4선의 '보물도시'가 입선되었다. 이 밖에도 '주변 관광' 부분을 추가해 순위의 다양성이 현저히 향상되고 사용자에게 보

다 포괄적인 나들이 지침을 제공했다. 새로운 트렌드에 따른 관광객들의 나들이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2024년 대중평의 '필수 관광 순위'는 36개 도시를 추가했는데 여기에 연변을 비롯해 흑호트, 시쌍반나, 양양, 장주 등이 처음으로 입선되면서 신홍 보물도시의 '온라인 나들이 지침'의 공백을 메워 지역 문화관광

단오 기간, 나들이객 두배로 늘어날 듯



단오 연휴가 다가오면서 나들이 화제가 계속 뜨거워지고 있다. 며칠전부터 단오 연휴 기차표가 속속 판매되었다. 여러 플랫폼의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단오 연휴 문화관광시장은 열기가 뜨거울 것이며 이런 상황은 여름 기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인기 목적지는 어디일까? 봄과 가을 관광보고에 따르면 올해 단오 나들이객은 지난해 동기를 넘어선다고 국내 관광객수는 지난해 동기에 비해 거의 2배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5월 24일부터 단오 연휴 전날(6월 7일)까지의 기차표가 육속 판매되면서 일부 인기 도시의 검색 열기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기차표 발매와 함께 호텔, 패키지 관광 등 예약도 조금씩 시작되고 있다. 취날플랫폼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단오 기간 호텔 예약량은 지난해 동기 대비 20% 가량 늘었고 그 열기가 지속

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어느 도시가 인기있을까? 취날(去哪儿) 기차표 예약 상황을 보면 단오 기간 관광은 여전히 주변 관광과 단거리 관광이 주를 이루고 2시간 고속철도권 도시가 주요 목적지이며 북경, 상해, 광주 등 중심도시에서 주변 소도시, 특히 현급 도시로 가는 기차표 예약 열기가 평소보다 200% 이상 높았다. 또한 서안, 항주, 랴양, 소주, 성도 등 역사문화도시들은 최근 몇 년 동안 인기있는 새로운 중국식 관광으로 다시 인기 목적지로 되었는데 룡주 관광, 역사박물관 관람, 무형문화유산 체험과 중국 전통복장 체험 등 새로운 중국식 관광이 인기 방식으로 되고 있다. 단오 기간 기온이 상승함에 따라 청도, 대련, 위해, 연태, 하문, 천주 등 해안 도시의 인기도 뚜렷이 높아지고 있다. /본지종합

길림성 관광 브랜드 전세계에 소개

길림성관광발전대회 장백산보호개발구서 곧 개최

관광사업에 관한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 지시 정신을 깊이 관철하고 전국 관광발전대회 포지 요구를 착실히 락착하며 우리 성을 관광강성으로 가속 건설하기 위해 6월 13일부터 6월 16일까지 장백산보호개발구에서 '길림성관광발전대회'를 개최하게 된다. 지난 5월 31일, 성정부 신문판공실은 소식공개회를 개최, 길림성문화및관광청, 길림성체육국, 장백산개발구관리위원회 해당 책임자들이 '길림성관광발전대회'의 관련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했다. 이번 대회는 '관광의 고품질 발전, 관광강성 가속 건설'을 주제로, 관광강성, 빙설강성 건설을 목표로 '문화로 관광 발전, 관광으로 문화 수출'을

견지하고 현대관광업 체계를 완벽화하며 장백산의 세계 최고 관광목적지 건설을 위해 전력하게 된다. '한번의 회의 개최로 한 도시를 진흥시키자'를 통해 장백산지역의 문화관광산업 발전 사업 체계의 전면적인 최적화, 서비스 품질의 전면적인 개선, 브랜드 이미지의 전면적인 승급을 촉진하고 전 성 관광산업의 고품질 발전을 추동하며 만역급 산업집군의 육성을 가속화한다. 길림성문화및관광청 당초 서기 진홍강은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이번 대회는 관광사업에 대한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 지시 정신과 전국관광발전대회 정신을 주선으로 전 성 관광업 고품질 발전을 둘러싸고 전면적인 동원과 포치를 하였다. 대회에서는 길림 관광 관련 전문 추천회를 소집해 전

세계에 길림 관광 새 제품, 새 업체, 새 발전 성과를 전시하게 된다. 길림성은 올해 1분기 국내 관광객을 루계로 9,071만명 접대해 동기 대비 95.4% 증가했으며 국내 관광수입은 1,682억 원으로 동기 대비 107% 증가했다. '5.1' 연휴 기간 관광객 접대량, 관광수입은 동기 대비 각각 118.7%, 160.3% 증가, 특히 성의 관광객 비율은 35.6%로 전년 동기 대비 17% 포인트 증가했다. 알아본 데 따르면 이번 대회는 규격이 높고 내용이 풍부하다. 대회는 하나의 주회동과 여러 부회동으로 구성된다. 지난 3월 장백산은 '세계지질공원' 네트워크 명부에 등재, 이 세계급 영예를 둘러싸고 대회는 '세계지질공원' 현판식을 준비하였을 뿐만 아

니라 장백산세계지질공원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회의도 개최하게 된다. 또한 성내외의 인터넷 유명인과 국내 유명 예술가들을 초청하여 다양한 형식으로 길림 관광을 홍보하고 길림 이미지를 전시한다. 동시에 문화, 관광 및 스포츠 산업의 통합을 강조하고 '분설전기(粉雪传奇)' 대규모 관광 공연, 중국·길림 변경 마라톤 경기 및 기타 일련의 활동을 개최하게 된다. 알아본 데 의하면 대회 기간, <대장백산 구역 관광 발전 계획>, <송화강 류역(길림성 구간) 관광 계획>, <길림성 연변(沿边) 개방 관광 대통로 관광 발전 계획>을 발표하여 백산, 송수 이 두 문화관광 브랜드 및 G331 관광대통로를 세계에 전면적으로 소개하게 된다. /손맹기기자

장백산 천지, 개빙 시즌 맞이



일전, 얼음층이 점차 녹으면서 장백산 천지는 '개빙 시즌'을 맞이, 대량의 관광객들이 감상하러 찾아왔다. 6월에 접어들어 기온이 반등하면서 장백산 천지는 개빙 초읽기에 진입했다.

장백산 천지의 해발은 2,000미터 이상이고 겨울은 10개월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천지의 결빙기는 일반적으로 매년 11월말부터 이듬해 6월 중순까지이며 매년 립하가 지난 후에야 개빙한다. /인민넷

장춘에 직항로 하나 더 생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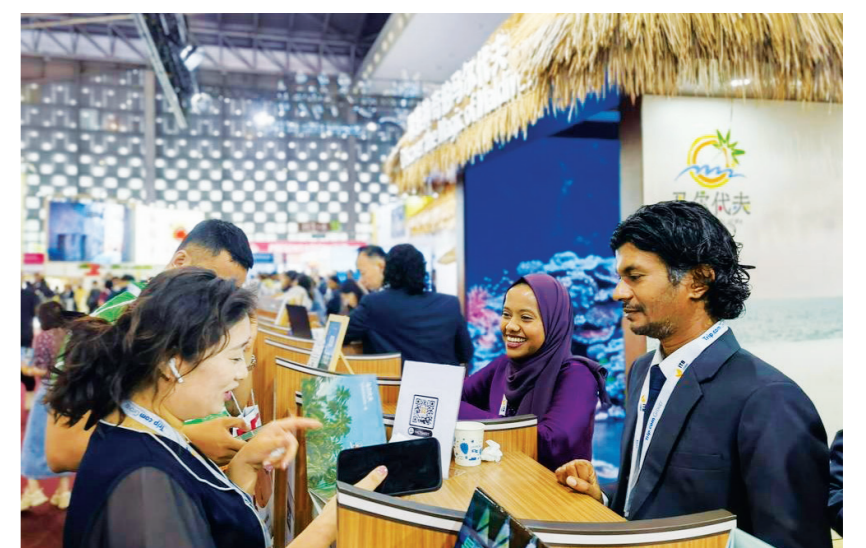
6월 24일부터 남방항공은 장춘-알파이 직항편을 운행하게 된다. 이는 길림성에서 신강으로 가는 남방항공의 두번째 직항로로서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에 운항할 계획이다. 이 항로의 개통은 승객의 여행 수요를 더욱 충족시키고 두 지역의 경제 무역, 문화, 관광 등 산업 발전을 위해 더욱 편리한 '공중다리'를 놓아주게 된다. 알아본 데 따르면 이 항공편은

에어버스 A320 기종으로 운행된다. 장춘-알파이 항공편 번호는 CZ5349이며 10:50 장춘퉁가국제공항에서 출발하여 16:30 알파이설도공항에 도착한다. 알파이-장춘 항공편 번호는 CZ5350이고 17:30 알파이설도공항에서 출발하여 22:20 장춘퉁가국제공항에 도착한다. 앞서 이 항로는 이미 표 판매를 시작했는데 장춘-알파이 항공편 가격은 1,350원부터다. /길림일보

안도, 연속 7년 아름다운 현에 입선



5월 24일, 제20회 중국(심수) 국제문화산업박람회에서 '2024 중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현지역 순위'가 발표되었다. 안도현, 장백현, 집안시, 무송현, 훈춘시 등 전국 107개 현과 시가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그중 안도는 7년 연속 이름을 올렸다. '중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현지역 순위'는 현지역의 생태미, 인문미, 산업미를 평가 기준으로, '미의 발견, 미의 전파, 미의 향유'를 취지로 관광 소비자들에게 더 많은 선택 가능한 관광 목적지를 제공하는, 지역 전체의 관광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는 상업적 요인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공의 동적 순위이다. 최근 몇 년 동안 안도현은 풍부한 관광자원, 좋은 생태환경, 편리한 교통네트워크 및 오랜 역사와 문화에 의존하여 관광산업 발전의 기초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풍경구 기반시설 건설을 개선하며 관광기업의 전면적인 수준과 경쟁력을 향상시켜 관광객들에게 더 좋은 관광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지속적인 발전과 성장을 통해 안도현 관광산업은 새로운 생기와 활력을 뽐내고 있다. /안도현문화라지오텔레비존방송및관광국



'상해국제관광교역박람회'가 지난 5월 27일 개막했다. 사흘간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80여개 국가(지역)에서 온 600개 이상의 관광 조직 및 기업이 참가했다. 사진은 폴디브 전시부스에서 상담받는 방문객. /신화사